

##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 제 7장 욕구와 영혼의 지배 I

#### ◆ 1교시 좋음과 욕구의 관계

##### ▲ 소크라테스가 지닌 심리적 전제 - 진짜 좋은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사실, 중요한 심리적인 전제는 이제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 것을 결국엔 좋아한다, 원한다. 어떤 의미에서 요런 어떤 심리적인 그 전제를 그 플라톤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이제 가지고 있고요. 『국가』 편의 경우에는 그 주장이 505d-e에, 이것은 이제 제가 읽어보시라고 한 부분이 아니라 6권에 이제 나오는 애긴데요. 거기 잠깐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05에 e인데, 우리 이제 430쪽이예요. 430쪽에 이제 보면, 아니 저 d에 중간쯤에 보면요. “즉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 올바른 건 결국에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생각되는 것을 설령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행하고 소유하며 또한 생각하는 쪽을 택하려 하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워 보이는 것, 아까 이제 글라우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는 것, 그것을 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좋은 것들의 경우에는 아무도 ‘그런 것들로 생각(판단)되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여전히 만족해하지 않고, ‘사실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모두가 이 경우에는 의견을 경멸한다는 게 말일세.” 라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좋은 것을 구별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X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때 X가 그 사람에게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에 만족한다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 이제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만약에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같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금 좋아했던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지려고 했어요. 가지려고 딱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래요. 그렇죠? 가짜면, 이 가짜, 예전에 이것이 나한테 좋아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것 갖는 걸로 만족하느냐, 그러지 않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 알면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한 것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의 경우에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보이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죠?

정의의 경우에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실제로, 물론 이제 진짜 실제로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건, 그건 상관없고요. 내가 그냥 정의로워 보이는 이 행동을 했는데, 내가 좀 굉장히 좀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럼 그걸로 만족한다 말이에요. 내가 뭘 갖느냐, 하고 관련해서 내가 정의로움을 가질 때 정의로워 보이는 것, 그것만 가져도 나는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음하고 관련해서는 단순히 나한테, 그렇게 나에게 보이는 것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을 안 한다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게 실제로 좋은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진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좋아 보이기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이냐, 라고 구별을 했을 때, 좋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그 430쪽, 505의 d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느냐 하면, e에 가서 보자면, 바로 그 밑에요. “모든 혼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며 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게도 되는 것,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혼이 예감하면서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혹해 하며 족히 파악하지도 못하여,”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느 것과 관련해서 갖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확고한 믿음도 갖지 못할 경우에, 혼은 이 때문에 다른 것들에서 얻을 수 있을 그 이득조차도 얻지 못하고 마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좋음하고 관련해서는 누구나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누구라도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 갖기 위해서 뭐든지 할라 그래요. 요즘에 그 부모들 보면 애들, 뭐 그 애들한테 좋은 것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학원에도 보내고, 뭐 별의별 것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다 뭐냐 하면, 다 진짜 좋은 것, 어떤 것을 애들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뭐든지 다하고 돈 쓸어 붓고 강남구 이사 가고... 뭐 별의별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군 찾아서 그런 것 하고 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한편으로는 이게 애들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좋은 것인지 잘 모르면서도 사람들이 한단니까 안하면 좀 뒤쳐질 것 같아서 막 시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라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좋은 게 뭔지는, 그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어떤 생각들을 갖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505의 e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진짜 좋은 것에 대한 추구, 그런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어요.

#### ▲ 좋음에 대한 믿음과 어긋나는 욕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진짜 갖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땅한 애긴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막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뭔가 실제로 좋은 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라는 것이 일단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요. 그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 진단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 진단으로 끝나진 않는데, 분명히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구와 어떤 것이 좋다, 라는 믿음이 일반적으로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해매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좋은 게 뭔지 몰라가지고, 애들 과외 시키고 막 이러는데, 애들 막 과외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과외 시키는데. 그렇죠? 강남 엄마들이나, 강남 엄마들만 시키는 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대학을 가면 뭐하냐? 뭐, 이런 대학 가가지고, 대학가서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과외 시키고 하는 것이 애 망치는 길이 된다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다. 나중에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시킬 사람, 부모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추구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반적으로만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다, 라고 믿는 것하고 내 욕구가 같이 안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 좋은 것을 다 추구해요.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만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추구하고 진짜 좋은 것, 소크라테스에게서 말하자면 진짜 좋은 게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국가』라든지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아, 진짜 좋은 게, 영혼이 이렇게 좀 제 기능을 잘하는 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맨 날 영혼에 좋은 것만 추구하느냐?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분명히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에서 보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담배를 누가 끊고 싶어 한다, 담배는 몸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담배 몸에 나쁘다는 그림 아무리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냥 여전히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면 담배 피는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담배 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가 좋음에 대한 믿음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엔 분명히 내가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이 그림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것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 아테이만토스의 문제제기와 소크라테스의 해답 - 영혼의 나눔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욕구하고 좋음에 대한 믿음이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좋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적어도 이 『국가』편의 소크라테스가 대답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영혼의 분리에 대한, 영혼을 그 나누는 것에 대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욕구와 좋음,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일반적으로는 같이 가는데, 왜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이것이 『국가』편의 실질적인 맥락에선 그 대답을 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영혼 분리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글라우콘과 더불어서 이제 아테이만토스라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할 때, 143쪽에 보시면요. 그 e라고 된 데, 그 367의 e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비단 정의가 부정의보다 더 낫다는 주장만 밝히실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그것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자체로서, 즉 신들이나 남들에게 발각되건 또는 그렇게 되지 않건 간에 무슨 작용을 하기에, 한쪽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쪽은 나쁜 것인지도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테이만토스가, 『국가』 1권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1권 끝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정의하고 부정의하고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한 것 같다, 하고 1권에서 끝났었는데요. 바로 2권에서 아테이만토스가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정의가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 정의가 어떤 종류의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혼을 나누는 작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은 정의가 과연 진짜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구요. 그러니까 영혼 나누는 것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나눴다는 것. 그것은 『국가』편 내에서의 맥락인데요. 좀 약간 이제 드라마의 맥락하고 약간 벗어나서 좀 보게 되면 또 다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나누는 작업을,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 아크라시아의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 뭐 일반적으로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혼, 뭐 정의가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제 돈이 실제로 좋은 게 아니다, 뭐 어떤

명예가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 얘기가 맞아, 하고서도 돌아서 집에 가서는 돈 벌기 위해서 뭐 할 테고, 명예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들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도덕책들, 뭐 이런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이 읽고서,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 알고 있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무슨 뭐 대학교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특히 윤리학을 많이 공부한 윤리학 교수라고해서 그 사람이 과연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래이래서 좋고, 이게 이래이래서 좋고 막 가르치고, 사실 저부터도 이렇다고 얘기하고 나서 딴 데 가서 괜히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하고 좋음에 대한 믿음이란 것이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것이 좋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실제로는 그런 행동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 좋지 않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맨 날 밤에 일기를 쓴다든지, 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명상하고서 내가 이런 행동들 했어,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생각하고서 그 다음날 또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뭔가 내 믿음하고 어긋나는 종류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요구는 뭐냐? 욕구하고 믿음이 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욕구라는 게 뭐냐? 욕구가... 실제로 아까 그 잠깐 나가서도 말씀드렸고,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말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을 욕구한다, 추구한다, 라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좋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욕구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데, 나는 사실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욕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좀 이상하다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것도 철학 계 내에서 아주 고전적인, 그러니까 문젯거리 중의 하나였어요. 이것을 으흠, 아크라시아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는 이 말이 번역되기를 의지박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했었는데, 이 번역보다 요즘에는 ‘자제력 없음’이란 번역어로 번역이 됩니다. 만약에 욕구라는 것하고 좋음에 대한 믿음이 같이 간다고 한다면, 그 아크라시아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X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X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혹은 거꾸로 X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X를 하는 것. 이제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의지가 약해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욕체가, 그 뭐죠? 욕체가 약해서. 그렇던가? 성경에 나오는 말. 어쨌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한다. 왜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냐? 혹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냐?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욕구가 강해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가 약해가지고 좀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의지라는 말을 보통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이제 그 그리스어, 아크라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이고요.

#### ▲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다루는 아크라시아

이제 이 아크라시아 문제를 철학적 문제로 끌어들인 것은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입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에는 사실 이 아크라시아라는 게 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좋다고 생각 되는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네가 그 어떤 행동을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그러는 네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때는 욕구하고 좋음에 대한 믿음이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간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욕구와 좋음에 대한 믿음이 항상 같이 가면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거나, 하지 않으려는 욕구는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반대의 경우를 쓰는 것이 좀 낫겠네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X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어떤 주장을 해요.

#### ▲ 『국가』 편에서 다루는 아크라시아 - 상반된 욕구 간의 갈등

『국가』 편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국가』 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왜 X를 하나? X를 한다는 것은, 이게 X를 욕구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뭐 무슨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아크라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예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들었던 담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예요. 물론 이제 그 담배를 꼭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담배 피우는 게 무조건 나쁘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담배를 못 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고 금연학교도 다니고, 금연 칩 맞고 이러면서도 계속 못 끊는데, 그 사람은 순전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담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 가지고 이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혹은 뭐 예컨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 나는 이제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다, 바람은 나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 아주 멋진 어떤 남자나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나서 마음이 동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도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외도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끌리는 것이, 욕구 때문에, 내 욕구를 견디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술 마시는 경우에도 내가 오늘은 딱 술 두 잔만 하고서, 술 많이 먹으면 나는 그 이제 주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는 두 잔만 먹어야 된다, 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랬다가 마시고 싶은 술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때 이제 뭐 마시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으흠. 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X를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애긴데 조금 이제 바뀌서 쓰겠습니다. X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X를

하는 것을 욕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구라는 것이 만약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종류의 욕구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X를 하지 않으려는 욕구와 X를 하려는 욕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요. 나는 이것을 하겠다는 욕구도 있고, 하지 않아야지 되겠다는 욕구도 있고, 그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X를 하겠다는, 하는 쪽에 대해서 욕구가 강한 경우에, 센 경우에 내가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제력이 없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욕구가 결국에, 만약 이것도 어떤 종류의 좋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 안에 X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X를 하지 않는 것을 욕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X를 하는 것을 욕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두 부분으로 나뉘었으니까 힘센 애가 이겨가지고, 힘센 애가 이기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힘센 애가 이긴 그 욕구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대답입니다.

## ◆ 2교시 욕구와 영혼의 나뉘

### ▲ 영혼의 나뉘를 설명하는 근거 - 대립자 원리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논증을 어떻게 펴는가 하는 것은 『국가』 4권 중간쯤에 뒷부분이죠. 4권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한 292쪽 정도부터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영혼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그 논증으로 펴기 위해서 근거로 삼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294쪽에 437 a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437a라고 된 그 바로 윗줄에, “더구나 우리한테 동일한 어떤 것이 동시에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상반된 것들을 겪거나 행할 수 있다든가 또는 상반된 것들일 수 있다고 설득하는 수는 결코 없을 걸세.” 그래서 그 밑에 몇 줄 더 내려가면, 이게 이러하다고 가정하고서 앞으로 나아가세나, 라고 하죠. 어떻게 보자면 모순을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건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모순을 아니고요. 보통 대립자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립자 원리. “동일한 것이 동시에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상반된 것을 겪거나 행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앞에 예를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만 손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보자면 난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강성호는 지금 움직이고 있나, 움직이고 있지 않나? 뭐 다리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손은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동일한 것이 동일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에서, 한 부분은 움직이고 한 부분은 정지해 있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팽이가 돌때 팽이의 축에 끝점은 정지해 있지만, 이제 돌고 있는 주변부는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어떤 술어를, 뭐 움직인다, 정지해있다, 라던가 하는 이런 술어를 갈다 붙이려면, 서로 반대되는 것을 겪으려면 부분이 나누어져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우를 보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욕구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욕구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같은 부분에서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르자면, 그래서 이 원리를 끌어들이고 나서...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목마른 사람이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것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마시기를, 물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이 마르다는 것 자체가 물 마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는데 마시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시려는 욕구가 있고요. 마시면 안 된다는 욕구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마르지만 더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우에 영혼의 동일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마시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립자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관점에서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것을 하기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원리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반대의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 사람의 영혼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뉘어져서 이쪽 부분은 욕구를 하고 반대쪽 부분은 욕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영혼이 일단 둘로 나뉘어져있다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437, 쪽 넘어가서 439에 가서, 298-299쪽에는 나오는 얘기에요.

### ▲ 따져보는 욕구

이것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은 왜 마시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보면... 이건 경험적인 사실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목마르지만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예컨대 여기 지금 그 17차가 있는데 누가 이제 굉장히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누가 얘기해주기를, 이거 좀 상했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면 목이 마르지만 요거 안 마실 거란 말이에요. 마시면 아플 것이라고, 상한 물, 음료수를 마셔가지고서 아프다고 생각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마시지 않냐? 이거 마시면 몸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마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마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 마시지 않는 것은, 왜 마시지 않냐. 따져보니까 마시는 것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욕구가, 마시지 않으려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그 이상 생활에 젖어 제가 얘기했던 자제력이 없는 경우들을 보면, 예를 들어 그 이제 술 마시는 경우에도요. 내가 지금 이제 술이 두 잔쯤 들어갔는데, 내가 딱 주량을 알아서 한 잔만 더 마시면 완전히 취할 것이라고 생각... 이거 마시면, 이거 마시고 그 다음에 주사 부릴 테고, 사람들이 나를 그 뭐 그 우습게 생각할 테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테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술은 여기서 그만하고 더 마시면 안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시지 않으려는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따져 봐가지고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되는 경우예요.

### ▲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욕구적 부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따져보면 목마름이 없어지냐, 여전히 따져서 이것을 그 마시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도요. 여전히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구인데, 따져보는 행위와 무관한 경우의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무작정 끌리는 거예요. 목마름은 내가 지금, 이 소크라테스 생각하기에는 목마르다는 것, 어떤 갈증이 있다, 뭔가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다, 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히 내 몸이 어떻게 되나, 그 내 몸에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 상관없이 물에 대한 욕구가 무작정...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무조건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욕구는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따져보는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따져보는 게 뭘 따져보는 거냐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보는 거겠죠. 이거 마시면 어떻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걸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따져보고 어떤 것을 욕구하게 되는 경우와 좋은가, 나쁜가, 따져보지 않고서 생기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는 것하고 무관하게 있는, 욕구를 관장하고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고요. 따져보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가, 따져보고서 욕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이성이라고 부르구요. 혹은 이성적인 부분, 이 부분을, 이진 이름이 따로 없이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 욕구적 부분에 대한 해석의 논란 - 좋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의 오류

이 욕구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 해석상의 그 논란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조금만 그 이제 복잡한, 다소 좀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요. 400, 그 우리 책으로 295쪽 밑에서부터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295쪽 중간정도를 보면요, 437 d요. “욕구라는 한 종류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것이 목마름, 굶주림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마실 것에 대한 욕구와 먹을 것에 대한 욕구인데, 그 목마름의 경우예요.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은 그 영혼에 있어서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욕구인데, 이 목마름은 뜨거운 음료수나 차가운 음료수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음료수에 대한 어떤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요. 438 a로 넘어가서 296쪽으로 넘어가서 “아무도 단순히 음료수를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료수를 욕구하면 음식도 단순한 것이 아닌 좋은 음식을 욕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나. 그야 누구나 좋은 것을 욕구한다고 하니 말일세. 따라서 목마름이 욕구라면 그것에 대한 좋은 음료수나 또는 그런 아무것이나에 대한 욕구일 것이며, 또한 다른 욕구들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일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만 그건 곤란한 이야기라고 쭉 하게 되는 되요.

이 논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나누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컨대 아까, 지금 목마르지만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이에요. 예컨대 그 물이, 여기에 그 마실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 마실게 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말이에요. 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마름이라는 것이 좋은 음료수에 대한 욕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좋지 않은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상한 음료수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더워서 땀 흘리고 물 마셔야겠다고 왔는데, 그거 하나 보고서 아, 이거 안 마셔야 되겠네, 하면서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지금 이 물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자면, 이것에 대한 욕구를 아예 안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혼 나누는 것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물은 있지만, 신체적으로 어떤 목마름하고 관련된 어떤 신체적인 상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욕구를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물은 그냥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욕구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물에 대한 욕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냐? 목마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좋은 음료수에 대한 욕구만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마름이 목마름인 한해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냥 마실 것이면 다 욕구를 하는 것이 목마름이다. 배고픔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먹을 것은 다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함축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지만 참는 경우, 목마르지만 참는 경우들은 뭐냐 하면, 목마름에 관련된 어떤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욕구는 그 욕구대로 있고 지금 이 음식을 욕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지금 욕구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특정한 바로 여기 있는 17차, 상한 17차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목마름이 욕구인 한에서 그냥 마실 것 일반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음료수냐, 나쁜 음료수냐, 따질 것이 없이 그냥 음료수이기만 하면 목마름은 그것을 추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복잡한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를 해서, 피하려고 하니까 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는 거 같아서, 여기 논증자체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목마름이 예컨대 목마름이 좋은 음료수에 대한 욕구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아까 그 17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왜 마시고 싶어 하지 않냐? 이게 지금 그 마실만한가를 따져보니까, 마실만한 좋은 음료수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목마름이 좋은 음료수에 대한 욕구라면 지금 그 17차에 대한 욕구는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소위 땀을 많이 흘렸지만 이것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좋은’을 떼버리면, 목마름이 음료수에 대한 욕구라고 한다면, 목마르지만 그 현재 마실 것이 좋지 않은 경우, 그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좋지 않다, 라는 건 어떤 판단을 내린 경우죠. 실제로 좋다, 라는 것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좋지 않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안 마실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제, 그런데 아까 애초에 얘기하기를, 그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438 a의 상황은 좋은 것, 혹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욕구란 말이에요. 이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종류의 욕구하고 좋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좀 같이 간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욕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요? 그 목마름이 사실은 좋은 것에 대한 욕구인 한에서, 그 목마름이 마실 것에 대한 욕구이고 목마름이 좋은 것에 대한 욕구면, 욕구는 이것 좀 위에 쓰겠습니다. 다시... 욕구, 같은 얘기구요. 그리고 목마름은 일단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목마름은 욕구인 한해서, 목마름은 욕구이고 욕구는 좋은 것에 관한 거예요. 목마름은 좋은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 목마름은 좋은 것, 역시 좋은 것은 계속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마름의 대상은 결국에는 마실 것이에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냐. 그러므로 목마름은, 자, 목마름은 좋은 것에 대한 욕구이고 목마름의 대상은 마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쓰면, 목마름은 마실 것을 대상으로 한 욕구, 마실 것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마실 것에 대한 거니까 목마름은 좋은 마실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증을 하게 되면, 목마름은 언제나 좋은 마실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마르지만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마름이란 것이 좋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라면,

내가 지금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좋은 마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이 논증이 맞는 것으로 본다면, 목마르지만 뭘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 ▲ 목마름의 두 측면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목마름이란, 목마르지만 좋은 마시려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목마름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몸에 수분이 없는 상태, 그것은, 그 자체는 욕구 자체를 함축하는 애기가 아니죠.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원하는 어떤 영혼, 심리적인 상태, 소크라테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해야만 욕구라는 애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목마름이란 것을 그, 이 2번 전제인데요. 목마름은 욕구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대항으로, 목마름은 신체의 어떤 그 상태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가지고 몸에 수분이 없단지, 이렇게 놓게 되면 목마름이 단지 신체의 상태이고 이건 욕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논증을 펴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종류의 어떤 목마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구로서의 목마름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애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목마름은 좋은 마실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논증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그 이제 목마르면서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한편으로 그 마실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실 것을 마시지 않으려고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애기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논증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438 a에서 이 논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요. 그 논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 방식은, 1번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욕구는 좋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의 욕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는 이것을 좋아하는 것하고 욕구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좋아한다, 좋다는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동물적인 욕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애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번 전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1번 전제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결론이 안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국가』 4권의 이 논증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혹은 플라톤이 좋음에 대한 생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종류의 욕구를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번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 2, 3, 4 다 받아들여도 그것으로부터 5번이 안 따라 나온다는 주장을 소크라테스가 하려는 걸로 생각이 되요. 왜 안 따라 나오는가 하면,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3, 4인데요. 3, 4, 목마름은 좋은 것에 대한 욕구다, 목마름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다, 그러므로 목마름은 좋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목마름이 이 두 개로부터, 목마름은 요런 것만 따라 나온다고 얘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실 것이란 뭐냐 하면...

마실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좋은 마실 것도 있고, 나쁜 마실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게 마실 것이고 좋은 마실 것, 뭐 나쁜 마실 것,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림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나 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마시는 종류의 좋은 것, 먹는 종류의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의 분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3, 4 번으로 따라 나오는 것, 목마름이 이것을, 이 부분을, 좋은 마실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꼭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중에서 마시는 것,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따라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목마름인 한해서 무조건, 그 마시는 것 하고 그렇게 딱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마시는 것 중에 일부분이 목마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뭐예요...

### ▲ 욕구의 상관자, 좋음

목마름이 좋은 것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사실 뭐에서 따라 나온 것이냐 하면, 욕구가 좋은 것에 대한 것이고, 목마름은 욕구의 일종인 한해서 좋은 것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관자가 뭐냐 하면, 욕구하고 좋은 것이 상관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생각해봅시다. 이 좋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상관자가 욕구예요. 마실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목마름이에요. 그렇죠? 목마름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이고, 그 욕구 일반은 좋은 것에 대한 욕구란 말이에요. 어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욕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마실 것을 욕구한다는 이야기는 마실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중에서, 욕구의 부분집합에 목마름, 목마름도 욕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고픔, 배고픔은 먹을 것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화는... 예를 들어서 복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화는, 뭐 어떤 복수에 대한 욕구다. 목마름은 마실 것에 대한 욕구다. 화는 어떤 복수에 대한 욕구, 배고픔은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욕구...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욕구들일 텐데요. 어떤 종류의 욕구든 상관없어요. 각각의 욕구들은 그 대상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욕구 전체가 어떤 좋은 것에 대한, 좋은 것을 상관자로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마름은 기본적으로 마실 것에 대한 상관이 있으면 좋은 마실 것에 대한 상관자는 뭐냐 하면, 목마름 일반이 아니라 특별히 좋은 마실 것에 대한 목마름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마실 것의 종류 중에 어떤 차가운 마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마름이 목마름 자체 안에서 목마름이 바로 차가운 마실 것을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차가운 마실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차가운 마실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좋은 마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마실 것에 대해서... 당연한 말이죠. 동어반복 비듯한데, 이것하고 상관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가운 마시는 것을 욕구할 때는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에 대한 욕구가 같이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먹는 것을 욕구한다고 한다면, 단순한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먹는 것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다고 생각한다면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이렇게 위의 것들은 위의 것들끼리, 하부적인 것들은 하부적인 것들끼리 상관관계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욕구이고 욕구인 한에서 목마름. 목마름이 욕구이고 욕구인 한해서 마실 것에 한해서 마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는 목마름이 말 그대로 마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특별히 좋은 마실 것만 그 목마름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 ▲ 이성적 욕구와 욕구적 욕구 - 영혼의 갈등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제, 막 좀 서둘러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영혼 분리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혼을 분리하는 데에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욕구하고 좋다, 라는 생각이 연결되는 것,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국가』 4권에 와서 거부하고 욕구 중에서 어떤 종류의 욕구들은 좋다, 라는 생각하고 연결되는 욕구가 있고 어떤 종류의 욕구들은 그런 생각하고 상관이 없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욕구인 한해서 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좋다, 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말하자면 다를 수가 있다. 하나는 이성처럼... 지금 이 욕구는 무엇이나 하면, 좋은 것,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이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좋지 않은 음식하고 좋지 않은 마실 것은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이 때 이성적인 욕구는 따져보고 나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 그것을 거부하고, 따져보고 나서 좋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만 욕구하는 것이 이성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목마름과 같은 욕구는 어떤 것이냐, 따져보는 작업은 없어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욕구라는 한해서 마시는 것에 한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고픔은 배고픔인 한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관장하는 영혼의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화는 조금 나중에 한 얘기구요.

이 부분이 욕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양자의 차이는, 하나는 좋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좋다는 생각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무관하게... 둘 다 자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는데, 그것을 추구를 하는 데에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성적인 부분은 따져보고 나서 이것이 좋을지 아닐지 계산을 해보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욕구적인 부분은 계산 같은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무작정 이것이 마실 것이구나, 하면 그냥 바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여자면 무조건 다 좋다, 뭐 이런 것은 이것은 계산 안 하는 것, 따져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욕구적인 부분하고 관련되고요. 그냥 뭐 술이구나, 그냥 무조건 술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담배구나, 담배니까 무조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따져보지 않고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욕구적인 부분들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들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따져보고 나서 이것이 진짜로 좋은가, 나쁜가, 한 번 계산을 해보고서 그 계산의 결과, 좋다, 라는 계산이 나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이성적인 부분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뭐 그 정도 얘기를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판에 제가 좀 약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해석도 어느 정도 들어간 건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욕구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종류의 욕구를 인정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가 욕구한다는 것, 왜 욕구하는 것인가, 욕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움직임이 왜 생기냐고 그러면, 누가 나를 밀어서 내가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왜 가냐, 그 대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때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서 그 대상이 뭐다, 이게 물이구나, 마시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가는 그런 종류의 욕구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리 저리 좀 따져보고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거저거 따져보고서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 따져봐야지만 움직임을 만드는 종류의 욕구가 있고요. 이 차이가 이성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의 차이인데, 이게 만약에 영혼의 한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서로 갈등하는 일이 없겠지만 영혼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쪽 부분에는 아무런 계산 없이 가는 것이 있고, 다른 쪽 부분에서는 좀 따져보고 나서야 이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서로 따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따져보는 부분에서 이게 나쁘다,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나쁘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따져보는 쪽에서는 물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좋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혼의 갈등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그 영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한 부분이 더 있단 말이에요. 한 부분 더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영혼을 나눈 것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부분에는 계속 4권까지의 얘기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히려 2권 중간부터 4권 중간에 나온 국가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섞어서 하게 될 테니까 적어도 4권 부분까지는 다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 6, 7권을 건너뛰고서 8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건너뛰다고 해서 안 읽어도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5, 6, 7권은 자세히는 안 읽더라도 서둘러서 읽어주시고 미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권까지만 읽을 건데, 그 다음 시간에 바로 8,9권까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미리 진도를 나가서 읽어주셔야지 8, 9권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읽을 때 부담을 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